Korea / Global Market
5 April 2013

Global Focus

미국시장, 글로벌 부양기대감에 상승

1. 미국시장, 글로벌 부양기대감에 상승 (Bloomberg 2013. 4. 4)

- 미국시장, BOJ 대규모 부양책과 ECB 정책방향 유지에 따른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상승
- 섀스뱅크의 선임 이코노미스트, 일본은행이 예상대로 대규모 통화완화책을 꺼내놓았다며,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분위기에 활력을 추가했다고 발언
- 반면, 노동부 발표,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8.5만건 기록, 전망치 35.3만건 상회
- 무디스 애널리틱스 선임 이코노미스트,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올해 이맘때 즈음에는 매주 변동할 수 있다며, 성장세는 양호하지만 기업이 적극적으로 채용 확대에 나설만큼 견조하지는 않다고 지적

2. 일부 연준 총재, FED 양적완화정책에 우려표명 (WSJ 2013. 4. 4)

- 캔사스 연준 조지 총재, FED의 현재 정책은 지나치게 경기순응적이어서 시장왜곡을 초래하고 금융안정과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위험을 드리우고 있다고 주장
- 이와 더불어, 금융 감독 당국이 연준 정책으로 초래된 과열 위험을 확인하고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강조
- 델라스 연준 피셔 총재, BOJ 공격적인 부양책이 FED로 하여금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지속하도록 압박해선 안된다고 주장
- 또한,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는 없으며 FED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

3. 드라기, 추가 부양조치에 대한 의사를 표명 (FT 2013. 4. 4)

- 드라기 총재는 ECB 통화정책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유로존 경기는 하반기에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통화정책 스탠스는 필요할 만큼 오랫동안 부양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
- 또한, 아직 이슈가 되지 않은 유로존 국가에서도 경기가 나빠지는 추세라며 앞으로 추가 정보를 주의깊게 지켜보겠다고 추가 부양조치에 대한 의사를 표명
- 더불어,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만장일치가 이뤄졌지만 금리에 대한 논의는 광범위하게 이뤄졌더라며, 당분간 금리에 대하여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발언

이재훈, Analyst
3774 1375
jaehun.lee@miraesasset.com

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미래에셋증권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미래에셋증권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. 작성자: 이재훈